

이스라엘아들으라

신명기 6:4~9

6: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

6: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

6:6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

6: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

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

6: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

6: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

+

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저녁 기도시간에 암송하였던 구절.

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 들어갈 때에 울려퍼졌던 구절.

키파 (유대인 빵모자):

<하나님을 경외함을 뜻함> -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!

바빌로니아 탈무드 학자 후나 벤 요슈아 (Huna ben Joshua)는

“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므로 나는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

네 규빗 이상 움직인 적이 없다 (Kiddushin 31a)라고 말했다.

거룩이란 말을 미간에 붙힌다면? 과연 부부싸움이 가능이나 할까?? (ㅎ_ㅎ)

(하나 - 에하드): (복합단일)

에하드:

한 개 이상의 개체가 연합하여 하나의 단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로써

하나의 복합적인 단위라 할 수 있다.

일치의 의미.

야히드:

이 단어는 절대 단수 글자 그대로의 하나, 곧 유일한(only)이다.

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된 예를 성경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.

부부가 둘이 한몸이 된다.

또는

[출 26:6]

금 갈고리 오십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양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찌며

➔ 일치의 개념은 장막과 관련되는데, 장막의 휘장은 함께 동여져서 **하나의 단위를** 이루었다

십계명중 하나라도 범하면... (다 범하는 것): 10계명을 하나로 보는 것.

에하드:: 하나님, 유일신, 계획과 목적과 뜻에 있어서 불일치 없이,
완전한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신다는 의미!

+ 이와반면에 야히드 (숫자 1을 의미).

2

네페쉬:

 (5315, 네페쉬)

숨쉬는 존재, 영혼, 생명 등

(숨쉬는 존재) (성품으로 해석. Soul로 번역하기도) (개역개정판에서는 ;뜻'으로 번역))

:: (마음/성품/힘) - (마음/뜻/힘)::개역개정판.

신약시대의 해석

마22장34~40.

22:34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

22:35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

22:36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

22: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

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

22: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

22: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

22: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

[막12:30]네 마음을 다하고 **목숨을** 다하고 뜻을 다하고 **힘을** 다하여

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

온전히. 사랑하라... (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?)

사랑에는 의무와 순종이 뒤따른다!

//요14:23

14: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**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**

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

14: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

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

14: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

(완전히 주와 함께 사는 것!)

요14: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**지키리라**.

If you love me, you will obey what I command. (Future tense – 미래시제)

~ 사랑하는 것.

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에게 있다.

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이다.

이웃을 그렇게 돌보도록 하는 것.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.

~

사랑은 순종이다.

알아야 사랑한다. 사랑은 계명은 지키라 한다.

큰 계명은 사랑이다. 계명은 사랑하라고 한다.

큰 사랑을 알기 전에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.

하나님을 사랑하라 ---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이다.

+

그런데 지키면 지킬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계명지키기.

그러나 문제는 예수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쉽다. 그냥 삶이니까...

(우리는 주객이 전도 되었다.) (모양만 힘쓰는 형국이니...)

//천연법칙을 어기면, 십계명을 어긴 것과 같다.

밥을 조금만 많이 먹어도 과식한 것이 아닌가? 괴롭다.

계명에 얽매이고 사니까.

그리고 그것으로 남을 정죄한다. "나는 이렇게 하는데, 너는 왜 그렇게 안하느냐?"

율법의 잣대로 남을 공격하는데 사용하지 않는가?

+

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.

음악이 달라도. 자기입맛에 안 맞아도.

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- 세미나리 드림치고 복치고...

+

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,

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.

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이다.

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. (이웃을 사랑하므로 실천하게 되는 것!)

+

그리고,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...

+

거의 교인이 안 될뻔 하였던 헝가리 여학생.

교회마다 경찰은 따로 있다.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!

+

내가 남과 다르듯이 남도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.

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. 다른 것과 틀린 것은

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!

+

나가서 거창하게 ... 남을 사랑하기보다는

우리 가족먼저... 그리고 교회가족먼저.

실천해 보라.

(누구나 교회의 부흥을 꿈꾸지만,

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, 새로운 영혼을 주시지 않는다.)

- 상처만 받고 나갈 테니...

이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찬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.

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

말씀을 줄입니다.